



깨끗한 정치를 꿈꾸는 환경동화작가 신자 국회의원 이석현(임마누엘)

글 · 박이문(자유기고가) / 사진 · 지성진(JIS포토)

이석현 의원은 한마디로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이다. 처음 본 사람을 익살과 유머로 편안하게 대해준다. 해맑은 미소로 반기더니, 미소 너머엔 푸릇푸릇한 청년의 기개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혹 바쁜 의정을 핑계로 얼렁뚱땅 인터뷰를 모면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터였다. 차근차근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그의 범상치 않은 말투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쟁이였다.

말로만 글쟁이가 아니라 이미 몇 차례 책을 출간한 관록 있는(?) 문필가였던 것이다. 어린 시절 추억을 비롯해 사람 내음이 물씬 묻어 있는 인간적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너도밤나무 아래서 쓴 나도밤나무 이야기”와, 환경동화인 “첫눈을 기다리는 은행나무”, “소라게는 정말 이사했을까” 등은 이미 문단에 잘 알려져 있다.

정치인들이 책을 냈다면 자기 자랑이 전부인데 그는 달랐다. <첫눈을 기다리는 은행나무>는 풀, 나무, 새, 꽃 등 만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솔직하고 담백한 문체로, 독자들에게 감동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동화 집필의 원천은 그의 순수한 동심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잠시 접어두고 있지만 어린이만을 위한 동화를 계속 구상 중이란다.

“눈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갖고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

고자 합니다.”

그는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회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노인·장애인 및 빈곤층을 먼저 생각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16대 총선에서 낙선 후 잠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다. 공단 재임시절엔 환경보전 TV 캠페인으로 케이블 방송을 타기도 했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는 ‘녹색공무원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깨끗해져야 할 것은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혼탁해진 정치를 바로잡아야 나라의 기강이 살고 국민들이 편안해집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깨끗한 정치’ 그리고 ‘국민 민생경제의 회복’이 그의 의정목표이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여 미래에 대한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인’이 되겠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총각이다.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마음은 열려 있으나, 아직 성모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보다.”라며 우스개 소리를 한다. 혹 독신주의자냐는 질문에 지금은 할 일이 많아 잠시 미루고 있지만 평생 혼자 사는 독신주의는 아니라며 다가올 인연을 위해 성모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아직도 할일이 많다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바라며, 그를 통해 만들어질 깨끗한 세상을 기대해 본다. 🐞

“세상의 생명들은 그 자체로써 소중한 것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도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상생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덧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며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라게는 정말 이사했을까’의 저자 서문 중에서)